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44화)

단상에서 말씀을 하게 되면 말씀이 씨가 되어 그대로 이루어진다

8절: 일곱째 천사가 완성자로 거듭나는 과정

- 1) 신앙공동체마음과 감람산 정상의 오만계단
- 2)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는 신앙생활
- 3) 마귀를 기만하는 하나님의 쇼
- 4) 하늘의 사람을 제거하려고 함
- 5)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분은 하나님
- 6) 신비로운 초능력을 행하다
- 7) 마귀 취급받으면서 자존심을 죽이는 연단

6) 신비로운 초능력을 행하다

(지난호에 이어서)
이 청년 또한 “그것을 어떻게 아세요?” 하면서 무서워서 제단 출석을 하지 않기에 다음부터는 지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라보이는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지 말라고 하시므로 그 후부터는 뱀새가 나도 일체 지적을 할 수가 없었으며 알면서도 모르는 것 같이 지냈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 조 중위 전도사에게는 이미 오래 전에 이와 같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은 제주도에서 신병훈련을 받고 있었을 때 훈련병 중에서 돈을 잃어버린 자가 있어 중대원 전원이 단체인합을 장시간 받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엎드려 있어도 벌인이 나타나지 않아 모두들 고통이 심하므로 일곱째 천사가 벌떡 일어나 나가서 “중대장님, 제가 도둑을 잡을 테니 기합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봤어?”
“안 봤습니다. 그러나 300명 훈련병 전원을 제 앞으로 1미터 간격으로 한 명씩 제 눈을 바라보고 지나가도록 해주시면 제가 잡아내겠습니다.”라고 하니, 중대장이 “너, 못 잡으면 죽어.” 하며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일곱째 천사 앞으로 150명쯤 지나가는데 구린내가 나는 자가 있어 “중대장님, 바로 이 놈입니다.” 하니,

그 훈련병이 일곱째 천사의 목살을 잡고 아니라고 우기며 “이 자식이 괜히 생사람 잡는다.”고 핏발 펴며 날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뱀새난다는 소리는 하지 못하고 “내가 봤어! 막사에 너 자리 밑에 숨겼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중대장이 사람을 시켜 도둑질한 훈련병의 자리 밑에서 돈을 찾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 훈련병들 사이에서 일곱째 천사의 별명이 ‘조 귀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일곱째 천사는 벌써 20대에 뱀새로 음란죄인, 도둑질한 죄인들을 구별해 내었던 것입니다.

단상에서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그 이후부터는 남을 비방하거나 저주할 수 없었다

일곱째 천사가 온양전도관에서 시무했을 때 제단에 있지 않고, 제단과 좀 떨어진 마을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제단에 가는데 하루는 지름길을 철조망으로 막아 놓아 돌아서 가다가 늦게 도착하여 단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훼방하는 자 좋지 않다.”는 말이 그 자신도 모르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그 철조망진 집의 열두살짜리 외아들이 먹 고다가 물에 빠져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죽은 아이의 부친은 평소 전도관이라면 괜히 싫어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다가 급기야는 그 길이 자기 농토 안에 있는 땅이라는 핑계로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 집안의 기막힌 사정과 애곡 소리를 듣고 일곱째 천사가 찾아가서 “그 아이를 제가 책임지고 살려 줄 테니 그 아이 시체를 달라.”고 하니 더욱 핏발 펴며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며 기어 거절하기에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동네 유명한 무당을 불러와서 자리걸이(푸닥거리)를 하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전도관 전도사를 미워하고 길을 막았기 때문에 죽었

다.”라고 하니, 아이의 부친이 “며칠 전에 전도사가 와서 죽은 아이를 내놓으면 살려주겠다고 해서 거절했는데, 지금이라도 전도사에게 부탁하면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무당이 대답하기를, “그때 전도사가 아이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주었다더라면 틀림없이 살아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시체가 너무 썩은 상태인지라 전도사를 불러와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본 일곱째 천사는 그 이후부터는 남을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입에 담지 않으려고 각별히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단상에서 말씀을 하게 되면 말씀이 씨가 되어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말에도 ‘여자의 악담에는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아무 생각도 없이 ‘벌어먹을 자식’이나 ‘망할 자식’ 등의 욕을 하는데 그 말이 씨가 되어 정말로 자식들이 커서 이직 저직으로 기웃거리거나 동냥치가 되거나 어떤 사업을 해도 재수가 없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는, 이와 욕을 하려면 ‘잘 될 놈의 자식’이라든지 ‘부자 될 놈의 자식’이라고 고쳐서 말하는 버릇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 일곱째 천사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좋아 죽겠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등등 ‘죽겠네’로 끝맺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이 씨가 되어 모든 인



“조 중위는 앞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단에 세울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영모님

류가 죽어가는 것이 틀림없다고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영생하겠네’ 또는 ‘살겠네’로 고쳐서 말하고 ‘죽겠네’ 소리를 하지 않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사망권세를 쥔 마귀가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도관 역사에 전도사가 예배 인도할 때 이슬성신이 내린 것도 전무한 일이지만 전도사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순식간에 부흥된 일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일곱째 천사가 온양제단에서 시무하는 동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비를 멈추고 뱀새로 죄를 지적하는 등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역사가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곱째 천사가 예배를 인도하면 이슬은혜가 너무나 강하게 내리기에 참석할 교인들 대부분이 뽀얗게 내리는 이슬을 눈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일곱째 천사가 영모님의 육중발령을 받고 전도사 신분으로 온양제단에 왔을 때 그곳에 나오는 교인이 세 사람

밖에 안 되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이제 사람을 데리고 전도를 시작하였으며 또한 매일 새벽제단을 쌓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교인이 다 병들은 환자였는데, 은혜를 받고 모두 병이 깨끗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병이 낫게 되자 신앙의 불이 붙어 열심히 전도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해 오니까 여섯 명이 되고 여섯 명이 또 한 사람씩 전도해 오니까 열두 명이 되고 이렇게 계속하여 석 달 만에 삼백 명이 모이는 제단으로 부흥된 것입니다.

전도된 삼백 명의 식구들도 거의 다 환자였는데 제단에 나와 병이 낫게 되니, 그들이 불이 붙어 예배에 임하여 손바닥을 치면서 찬송을 불러도 그 손바닥 소리가 온양 시내 일대를 울릴 정도로 크게 치고 찬송하니 사람들이 신기해서 몰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전도관 역사에 이렇게 순식간에 부흥된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또한 전도사가 예배 인도를 할 때에 이슬성신이 내린 것도 그 어느 다른 제단에서 찾을 수 없는 유일하게 온양제단에서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영모님이 옥중에 계실 때에 온양에서 부흥회를 가졌는데, 부흥강사로 유재창 전도사를 초청하였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찬송인도를 맡아서 하면 교인들이 신바람이 나서 찬송을 부르다가도 이어서 유 전도사가 설교하면 절반 이상이 조는 것이었습니다. 유 전도사는 “내가 설교하면 꼬박꼬박 조니까 조 전도사님이 찬송인도를 계속하십시오.”라고 하기에, “그래도 부흥강사로 오셨으니 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주십시오.” 해서 그냥 계속 설교는 했지만, 좌우시간 단에 서서 사람에게 의해서 은혜가 강하게 내리는 사람은 은혜가 되지 않은 은혜가 강하게 안 내리는 사람은 은혜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모님이 석방될 때에도 일곱째 천사가 전도관 전도사 이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기

도를 대표로 하고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단에 그만 서, 계속 단에 서게 되면 이길 수가 없어. 이긴자가 될 수 없어!

또 일곱째 천사 전도사의 방에는 늘 향취가 진동하기 때문에, 온양제단 식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도사 방에 들어왔다가 가려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애걸복걸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주면 들어와서 방안에서 나갈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왜 안 나가십니까? 밥하러 가야하지.”라고 하면, “밥하러 가는 게 문제입니까, 지금 이 방안에 들어와 있으면 몸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향취냄새가 진동하고 몸이 날아갈 것 같은데 집에 가겠습니까?” 하고 있으면 일곱째 천사는 방문을 열고 나가서 한참 동안 밖에서 돌아다니다 한방중에도 들어와 보면 다 가고 없는 것입니다.

온양제단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역사를 하게 되니, 하루는 영모님께서 일곱째 천사를 부르셔서 “이제 단에 그만 서, 계속 단에 서게 되면 이길 수가 없어, 이긴자가 될 수 없어. 조 중위는 앞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단에 세울 거야.”라고 하시기에,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은 “네, 알겠습니다.”하고 온양으로 돌아와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정은 숨긴 채 단지 온양제단에서 그만 시무하라는 영모님의 뜻만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전 교인이 들고 일어나서 장로를 중심으로 곳곳으로 다니며 조전도사가 온양제단을 떠나면 온양제단은 문을 닫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說) <21>

무위복승분(無爲福勝分) 第十一

[해설] 그런데 이러한 한 항하의 강가에 있는 모래도 양이나 숫자로도 엄청난 양인데, 그런 간지스 강이 삼천대 천세계인 우주에 마치 항하의 모래처럼 많이 있다고 하면 마음속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데 하물며 인간으로서의 상상을 불허하는 모래의 양이 되겠지요.

그리고 수보리는 그러한 보시를 한 사람의 복과 덕이 많으니까 문은 석존의 질문에 수보리도 역시 복이 많다고 하는데 석존은 여기서 지금까지 이 금강경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를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아급실언고여(我今實言告汝)”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는 바로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번역되는 부분입니다.

왜 석존은 갑자기 이런 말을 썼을까요? 바로 다음 글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무위의 복이 떠 뛰어나다_(2)

佛告須菩提 불고수보리 若善男子善女人 於此經中 若受持四句偈等 爲他人說 內持受持四句偈等 爲他人說 內持受持四句偈等 爲他人說 內持受持四句偈等 爲他人說

而此福德勝前福德 이차복덕승전복덕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 가운데에서 사구계(四句偈)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말해 준다면 이 복과 덕은 이전의 (철보로 보시하여 얻는 사람의) 복과 덕보다 더 뛰어난 것이니라.

[해설] 바로 윗글과 같은 말로써 삼천대천세계를 꼭 매운 간지스 강과 간지스 강에 있는 모래와 같은 엄청난 양과 숫자만큼 보시를 했다 하더라도, 바로 이 금강경의 사구계(四句偈)의 뜻, 즉 석존의 진실된 바른 가르침과 의지를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석존은 이 금강경의 사구계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우주를 꼭 채울 정도의 수많은 보물로 모든 부처님께 보시를 하였어도 이 금강경의 진실한 내용과 사구계의 바른 뜻을 모른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일까요?

또 어찌하여 지금 이 금강경을 설하기 전까지는 재물을 보시하라고 물질적인 보시를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물질적인 보시가 아니고, 바로 석존께서 대중들에게 당신의 진실한 의중을 전하기 위해 노력을 하십니까?
석존의 가르침의 요지는 이 금강경

전체에서도 일관된 사상과 주장이 있지만 사실 불경 전체가 석존 재세 당시 제자들과 대중들을 위하여 말씀한 부분도 있으나, 석존 입멸 후 3000년 뒤의 일에 큰 비중을 두고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요즘 스님네들께서 그 당시를 위해 말씀하셨다고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리는데, 다음의 경전을 보면 분명하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반경을 보면 석존께서는 입멸하기 전에 제자인 마하가섭(摩訶迦葉)에게 전하는 말씀을 보면 불법의 근본을 아는 이가 있다면 몸과 목숨을 바쳐서 공경(恭敬), 공양(供養), 예배(禮拜)하라고 가르치는데 가섭이 석존에게 출가 사문은 재가 불자에게 절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재가 불자에게 절을 하라고 하느냐고 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석존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가섭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불경이 그 당시 재가 불자를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을 위해 쓰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반열반경 6권(大般涅槃經) 사의품(四依品) 제8

佛告迦葉 불고가섭 我爲未來諸菩薩等 學大乘者 說如是偈 我爲未來諸菩薩等 學大乘者 說如是偈 我爲未來諸菩薩等 學大乘者 說如是偈 我爲未來諸菩薩等 學大乘者 說如是偈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미래에 대승을 배우는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이렇게 계승을 말하는 것이지 성문(석존)의 제자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니라.

[해설] 이같이 분명하게 미래 세상, 즉 지금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펴보신 것과 같이 석존 입멸 후 3000년대가 바로 석존이 설정한 미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사구계는 바로 석존께서 석존의 위유의 불법을 따르지 말고, 미래의 법신불인 미륵부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인 성불할 수 있는 법을 찾아서 떠나라는 뜻이랍니다.

석존은 3000년 전에 이미 미래에 미륵

부처님이 세상에 오실 때를 아는 분이므로 미륵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방편의 가르침을 따르되 석존 입멸 이후 3000년이 되면 미륵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뜻의 비유로 방편의 가르침을 따



항하(恒河: 인도의 간지스 강)의 모래

르지만 미륵부처님이 오시면 반드시 미륵부처님께 귀의하여 불법의 근본을 따르라고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륵부처님은 출가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재가자 가운데 나타나시므로 그분께 몸과 마음을 바쳐 공양, 공경, 예배하라고 하는데 이를 이해 못한 석존의 제자인 가섭은 오히려 석존에게 항의를 하지만 석존은 미래에 미륵부처님이 오셨을 때 재가 대중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 금강경도 실제로는 미륵부처님이 오셨을 때 대승의 법을 배우려는 재가불자들을 위해서 설해진 경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법을 말씀하고 있지만 부처님, 하나님, 알라, 정도령, 상제 등등이 종교와 각 나라의 표현 방법이 틀려서 그렇지 사실은 기독교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부처

님이 기독교적인 표현은 하나님이고,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알라신이 기독교적인 표현은 역시 하나님이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온 정도령이 기독교적인 표현은 역시 하나님이고, 중국에서 말하는 상제 역시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고, 불교에서 표현하면 미륵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가 본래 각 종교에 기록된 경을 이해를 못하거나 특히 기독교와 불교는 경전을 조작해서 자기들의 치부를 위해 엉터리 소리를 하는 것은 실로 이런 사이비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미륵부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실패 도에 빠져 몸과 마음을 망치고 재산까지 잃으면서 죽음으로 빠지는 것을 볼때 실로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명鐘